

금요 수필

노을공책

산

자타에 걸린 노을이 붉다.
담신 짐으로 가는 길을 안
내해주는 김 할머니의 목소리도
덜덜 떨려 붙어 붙는다.
갈림길을 지나 들녘 길이 이어진다.
길 양옆으로
뒤어져 있는 밭베기가 길을 만든다.
고적한 풍경이 다가왔다.
말이 잔다.
엇그제 댁신도 텃밭에
마늘을 놓았다며
마을 어귀를 가리킨다.
신목(新木)의 귀가를
복은 땀나무 곁을 지나
공터에 주차를 한다.
건지 내린 김 할머니가 앞서 걸는다.



전 오영 수필가

기?깃짓 개가 찾아뵈면 뽕 뽕네는
조용하다.
초록대문 집을 지나
칠하지 않는
우빛 흰 대문 앞에서
멈춰 선 할머니가
숨을 고른 후
진진히 문을 연다.
피를 하나
없는 정갈한 마당이
조여의 어색함을
마중한다.
정면으로 보이는
일지령의 주객은
할머니의
농성에 맞게
개조할 듯 보인다.
소박하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고
가야 한다며
포리없이
데워 놓은
마루에 앉는다.

미당 너머 할머니의
미늘같이 보인다.
말 가삼재
복숭이 나무작하니
땅에
얼어져 있고
복을 돌아
갈무리
해는
과 두력은
과꽃 같은 김 할머니의
이디지
그대였다.
단정한
텃밭 위로
할머니의
구부정한
시간이
따라
달처럼
구름처럼
흐렸을
것만
가늠하.
풀을
매면서
한글
시간에
배운
글자를
땅에
써
브기도
했다.
할머니의
텃밭은
글자를
때문인지
더
푸른
것
같기도
하다.

기신
예기치
않은
방문이었다.
코로
내9로
인해
늦었던
문해
수업을
보강하게
된
이후
김 할머니는
유독
초췌했다.
하루
서너
대밖에
있는

다음버스
시간에
맞춰
학교에
다니는
아이
수월찮은
데나
워나
마른
체구라
체력이
최한
때근이
러니
했다.
그런데
보강
때부에
두어
시간
넘게
한에서
차를
가다
만
게
화근이라
했다.
다름
때
같은
정류장
근처
약국에서
잠시
나마
한기를
면했을
텐데
거리로
두어
야
하는
시간
이러다
그리
도
못했다.
내
수월한
진
이유를
몰어
놓았다.
나는
슬쩍
할머니의
뉘두리
틈새로
꺼어들었다.
그리
나
김 할머니의
집
방향에
붙어
있었다는
평계로
할머니를
그쳐
나드리
고자
한
내
속내가
오느의
느닷없는
방문인
셈이다.

김 할머니가
문해반
교실
문을
두드린
전
이때
전이었다.
백부에
다
소곳한
차림의
할머니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강의
시간
철삭하기
위해
내가
연예
라도
기면
할머니의
글자
들
도
당신처럼
진상하는
문치었다.
그러다
차츰
이들이
없어지고
할머니의
자리는
빈
적이
없었다.
숙제를
배웠으면
꺼니들
거르
는
것
같다는
말을
쿠신하
던
진기도
했다.

해방
되기
전,
일제가
순가
락,
짓가
라까지
가둬
가던
시절에
대어
났다는
김 할머니는
유독
말수가
적다.
가
난은
배우의
시간을
잊어
갔고
젊은
날
남편과
의
사별은
삶을
고독하게
했던
것
같다.
때근인지
노트
속
글자
들
도
흔쾌
해
보였다.
먼저
하늘로
간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던
할머니의
소망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부터
김 할머니의
일기장이
내
책상
위에
올라
왔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
하고
하소
연하면서
도
살의
예환이
속박
이
처럼
들어
있는
할머니의
일기장은
하루
도
파지는
날이
없었다.
계절을
따라
변하는
풍경을
나름대로
적어
오기도
하고,
양상한
나뭇가지
를
분
소회
를
당신의
교과
한에
빚
대어
적어
오기도
했다.
한글의
제자
위리와
애민정신을
배우고
난
다음
날엔
세종대왕을
사랑
한다는
말을
수줍게
내놓기도
했다.
어느
날은
글자들이
쓰면
쓰는
대로
거릿
속에
들어
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하소가
전혀
없이
노르에
비쳐
있었다.
꼭꼭
눌러
쓴
글자가
자극으로
나
남거나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많은
할머니의
일기장이
따른
경

이
되어
내게
말을
전해
는
것
같았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던
김 할머니는
이제
뵈
않자
리에
앉는다.
말수도
적춰
담아
지고
얼굴
도
밝아
졌다.
간혹
광둥
배운
것도
도당
전
너다
있어
버린
다며
너스레를
파우기도
하고,
교실
분위기가
전인
배추
치질
호노
작기
될
때
당신의
살이
녹아
는
해학으로
생기를
복어
놓곤
한다.
“내일
숙녀
라도
오늘은
사과
냥
구를
살
터
라고
와.”
김 할머니의
말에
의
자
가
이
수
생
하
리
를
편
은
근해
노실.
늦은
나이
안에도
늘
구하고
한
딱
한
딱
글을
수
놓는
학
며
나.
할
아버지
들은
생의
경
전
이
싶
다.

젊어
진
노을이
안산을
뵈
어
가
나.
큰
득
현고
화생
부군
신위
(수필),
‘리드
피어’
(시)
를
통해
등
단
했다.
이
말은
제
사
때
쓰는
지
방
이다.
죽은
사
람
에게
도
희
생
이
란
심
를
업
급
할
것
을
보
면
사
는
분
양
부
해야
할
이
유
아
닌
가
싶
다.

한
머니의
공
책
에
내
이
은
또
어
떤
어
디
가
가
채
워
질
까.

“전오영
수필가는
전북
부안에서
출
생
하
였
으며,
‘수필
과
비평’
(수필),
‘리드
피어’
(시)
를
통해
등
단
했다.
아
르
코
발
간
지
인
문
수
필
집
‘노
을
공
책’
과
서
평
집
‘사
유
의
여
백’
이
있
으며,
석
정
문
학
관
상
주
작
가
를
역
임
했
다.
현
제
‘수필
미학’
편
집
위
원
을
맡
고
있
으며,
교
육
자
원
청
과
교
육
문
화
회
관
등
에서
문
학
을
강
의
하
고
있
다.
\*E-mail :
ohyoung913@naver.com

사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전 서울시장 성동구청장은 1968년 8월 12일생(57)으로, 전라남도 여천군(현 여수시) 소리면 현천리에서 태어났다.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고, 이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개발경영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정 전 구청장의 이력은 현직과 실무 중심으로 단단하게 다져졌다. 임종석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오랫동안 지내며 정치적 실무를 익혔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를 지내며 지역 행정을 직접 경험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자치분권분야 특별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2026년 2월, 마침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성동구의 오랜 골목거리이자 44

년간 소음과 분진 문제를 일으켰던 삼포 레미콘 공장 철거를 끈질긴 설득과 협상 끝에 2022년 완료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하루 수십 통에서 백여 통에 이르는 민원 문자를 직접 확인해 답변하는 파격적인 소통 행정을 펼쳤다.

그의 행정 철학은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고사성어다.

그는 행정의 본질은 “가장 가까운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온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철학은 전남 여수에서 보낸 유년 시절, 어머니로부터 배운 ‘나눔의 가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결연이나 스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정치 철학의 뿌리가 되었다.

전주 천양정 도시공원 매입 갈등

전주시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도리어 논란을 낳고 있다. 예산 한계를 이유로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한 건데, 토지주들은 공원 기능을 해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천양정 위편으로는 다가공원이 펼쳐져 있다. 축구장 약 4개를 합친 규모로 비영리 재단법인인 소유한 사유지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체의 60% 이상이 공원 용지에

서 해제됐다. 남겨진 부지에 대해서만 전주시가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 보존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다가공원 일대 약 1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공원 전체를 매입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일부만 사들이기

로 방향을 바꾼 건데, 토지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무가 우거져 공원정관을 이루는 금정사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채, 평지나 일부 진출입로 등 이른바 ‘알짜부지’만 선별적으로 사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토지주 측은 이 같은 매입 방식이 공원의 공간적 일체성을 훼손하고, 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토지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억 원 넘는 비용이 수반되는 강제 수용 대신 상생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재단 측이 보유한 다가공원 주출입로는 전주시 매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악의 경우 공원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주시는 곧 예정된 강제 수용 절차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기자수첩

제9대 진안군수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우 태 만 지방부 진안주재

63지방선거가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안군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선거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행사다. 그래서 선거는 축제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작금의 진안군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군민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진안군민들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11일자 모 유튜브 방송이 진안

군민의 위상을 나락으로 떠밀었다. 정제 되지 않은 미디어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일방한 정의(?)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말에 숨어 군민들의 마음에 난도질을 하고 있다. 아직 확인되

지 않은 일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짜깁기 하여 무차별 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추잡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만약 선거기간에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미디어가 이용된다면 이는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미디어에 접근한 것을 미디어가 답석 물었는지는 모르겠다.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운다.’는 말이 있다.

이번 진안군수 후보로 등록했다. 능력 부족 등으로 탈락한 후보가 미디어에 제보해 자기의 화풀이를 하기 위해 2천4,000여명의 진안군민들의 얼굴에 X를 했다. 영원히 진안군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진안군민들은 알고 있다. 선거의 진안군민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네거티브는 멈춰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선거는 끝나겠지만 진안군민들이 안아야 할 상처는 누구에게 치료받아야 하는지? 이, 물음에는 누가 답해야 하는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